그때 고래가 내게로 걸어 들어왔다

여행, 고래, 그리고 에피파니

Think Travel

글·사진 최명애

경향신문에서 여행과 환경을 담당하다 영국으로 건너가 생태 관광을 공부하고 있다. 《트래블》, 《수첩 속의 풍경》을 썼다.

언제였을까, 고래 여행의 시작은

언제부터 고래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2005년 가을 캐나다 위니펙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고래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는 기억은 난다. 북극곰과 나는 그 전날 결혼했다. 우리는 캐나다 북극권의 처칠(Churchill)이란 마을로 진짜 북극곰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키어런 멀바니라는 그린피스 활동가가 쓴 《땅끝에서》라는 책을 들고 갔는데, 거기엔 기다리던 북극곰 이야기는 없고 계속 고래만 나왔다. 남북극 '개척'의 역사가 사실상 '고래 사냥'의 역사라는 이야기였다. 그 여행에서 고래를 보러 밴쿠버 아쿠아리움에 간 기억도 난다. 수십 미터 짜리 고래들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죽어 갔다는 이야기를 비장하게 읽다가 갔는데, 정작 만난 것은 고래치고는 작은 3~4m 짜리 흰돌고래뿐이어서 살짝 실망했었다. 포동포동 살이 오른 얼굴에, 늘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방긋 웃는 표정의 벨루가고래였다. 해파리 혹은 플랑크톤처럼 유유자적 수영하는 벨루가를 기쁘게 해 주려고, 넓지도 않은 수족관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열심히 뛰어던 것도 생각한다.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갔던 북극곰 마을 처칠은 여름이 되면 벨루가 마을로 '변신'하는 곳이었다. 처칠 강 하구로 수십, 수백 마리의 벨루가가 꾸역꾸역 올라온다고 했다.

고래를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다. 남태평양인가 인도양인가 여하튼 다 똑같이 생긴 어느 리조트로 가는 보트에서 열심히 배를 따라오는 돌고래도 봤고, 하와이에서는 서서 잠자는 고래들도 봤다. 파일럿고래라고, 하와이 앞바다에 사는 조그만 고래들이었다. 시커먼 나무토막들이 물에 떠다닌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로깅(logging)'이라는 고래들이었다. 웬만한 고래 탐조 여행에서는 보기 힘든 진귀한 경험이라고 했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도 확실히 기억난다.

잘 모르기도 했고, 그날 오후 스노클링을 하다 성게 밧에 얽혀 고동색 성게 가시가 허벅지에 송송 박히는, 인생에서 두 번 겪기 힘든 강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에 돌아와 병원에 가서 성게 가시 좀 뽑아 달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이 없다가 "산호에 찢려 온 사람들은 가끔 봤지만……." 하고는 안경을 고쳐 쓰셨다. 어쨌거나 요컨대, 나와 고래는 특별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고래는, 언제부터인가 안개처럼 내 여행에 스며들어 있었다. 정수리 끝이 찡하도록 추운 북극권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북극곰과 나는 적지 않은 시간을 고래를 찾아다니는 데 보냈다. 아니 엄밀히는, 고래를 기다리는 데 보냈다. 지도에 '고래'라고 표시된 곳이 있으면 차를 몰아 달려갔고,